

# 濟州島方言의 魚名 研究

姜 榮 峯\*

## 目 次

I. 序 論	3. 資 料
II. 本 論	4. 內容分析
1. 研究概況 및 資料集	5. 地域間의 差異
2. 調査方法 및 調査地域	III. 結 論

## I. 序 論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sup>1)</sup>은 濟州島方言의 言語地理學的 접근을 위한 질문지 작성의 기초작업으로 이루어진다.

方言分類를 한 學者마다 일관된 명칭인 '濟州島方言'으로命名되어, 포괄적 의미에서 매우 타당성 있는 방언구획 명칭이기는 하지만, 제주도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特異性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原語民들은 山北과 山南<sup>2)</sup>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하위방언구획 설정을 재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구획상으로 단일 방언권으로 묶어 명명한다 하여 문제될 게 없긴 하지만, 좁은 제주도 안에서 문화行態가 다르고, 신앙권이 다른가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몇 백년간 三懸分立의 시

1) 拙稿: "제주도방언의 식물 이름 연구", 「耽羅文化」 5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6.

2) 제주도에서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 사항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행정구획상으로는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부르나, 문화형태에 따라서는 '북제주(군)' 대신에 '山北'으로, '남제주(군)' 대신에 '山南'으로 명명, 구분하고 있다.

\* 人文大學 專任講師

기도 있었다.

이같은 여러 사항을 고려한다면 마땅, 막연하게 '濟州島方言'이라 할 것이 아니라 몇 개의 하위방언권으로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sup>3)</sup>

이에 따라 우리들은 물고기 이름을 가지고 (i) 《제주도방언조사질문지》 작성에 앞선 기초작업으로써 물고기 이름을 통한 기초조사항목이 결정될 것이며, (ii) 물고기 이름들이 지니고 있는 形態論의 특징과 命名類型이 탐색되게 될 것이다. 나아가, (iii) 지역간의 차이는 없는지도 함께 살피게 될 것이다.

## II. 本 論

### 1. 研究概況 및 資料集

물고기에 대한 연구는 순수 自然科學의 영역에 속한다.

물고기에 대하여 命名이 따르고 자연 그 이름이 붙여졌다면 國語學의 한 영역에도 속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研究는 아주 미흡하다.

필자가 접할 수 있었던 연구 결과로는, 魚名을 중심으로 한 方言의 語源研究 및 語彙解釋에 관심을 보인 李崇寧<sup>4)</sup>과 '독서 계급의 文語'를 口語化 과정 즉 diglossia<sup>5)</sup>로 파악한 張泰鎮<sup>6)</sup>이 있으며, 古文獻에 나타나는 魚名을 중심으로 種別呼稱과 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난 魚類分布를 조사한 金容俊<sup>7)</sup>이 있을 뿐이다.

한편 濟州島產 魚類에 대한 調查報告로는 鄭文基<sup>8)</sup>, 白文河<sup>9)</sup>, 李定宰·白文河<sup>10)</sup> 등이 있다.

鄭文基에 따라서는 181種이, 白文河는 西歸浦沿岸을 중심으로 201種을 조사보고한 바 있으며, 李定宰·白文河에 의해서는 100種의 魚類에 대한 地方名이 조사되었다.

이 小論은 앞의 李定宰·白文河 두 분의 업적에 힘 입은 바 크며, 필자가 조사한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 魚名이 추가되어서 이루어졌다.

3) 필자는, 개연성이 있기는 하지만 "제주도방언의 식물이름 연구"에서 '向山地域語', '向海地域語'로 구분을 시도해 본 바 있다.

4) 李崇寧: "魚名雜攷", 『震檀學報』 2卷, 震檀學會, 1935, pp.134~149.

5) "Diglossia is an excellent example of coexistence in the same community of mutually unintelligible codes, correlated with values and situation, and of the necessity of taking the community as frame of reference to avoid distorting the communication situation."

D. Hymes: *Language in Culture & Society: social structure and speech community*. New York, 1964, p. 389.

6) 張泰鎮: "물고기 이름의 어휘 연구", 『한글』 143, 한글학회, 1969.

7) 金容俊: 『古文獻에 記錄된 魚名의 考察』, 1976, 漢陽大學校 大學院.

8) 鄭文基: 『韓國魚圖譜』, 一志社, 1977.

9) 白文河: "西歸浦沿近海의 魚類相", 『研究報告』4, 濟州大 海洋資源研究所, 1980.

10) 李定宰·白文河: "濟州沿岸에 分布하는 海洋動植物의 地方名에 關하여: 魚貝類", 『研究報告』5, 濟州大 海洋資源研究所, 1982.

魚類圖鑑이 자료집이 됨은 두 말할 나위가 없고 다음과 같은 方言集도 쓸모가 있을 것이다.

- 石宙明(1947):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 출판부
- 박용후(1960):제주방언연구, 동원사
- 崔鶴根(1962):全羅南道方言研究, 韓國研究院
- 玄平孝(1962):濟州島方言研究(자료편), 精研社
- 金亨奎(1974):韓國方言研究, 서울대출판부
- 金永泰(1975):慶尙南道方言研究(자료편), 進明出版社
- 崔鶴根(1978):韓國方言辭典, 玄文社
- 金履浹(1981):平北方言辭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金泰均(1986):咸北方言辭典, 京畿大出版局

한편, 魚名이 나타나는 古文獻은 아래와 같다.

- 柳氏物名考 ——— 227항목
- 才物譜 ——— 192항목
- 玆山語譜 ——— 110항목
- 大東地志 ——— 60항목
- 新增東國輿地勝覽 ——— 54항목
- 譯語類解 ——— 52항목
- 漢清文鑑 ——— 38항목
- 東醫寶鑑 ——— 26항목
- 訓蒙字會 ——— 24항목
- 同文類解 ——— 24항목
- 物譜 ——— 24항목
- 雅言覺非 ——— 13항목
- 新增類合 ——— 6항목
- 四聲通解 ——— 6항목
- 譯語類解補 ——— 4항목
- 諺解痘瘡集要 ——— 3항목
- 痘瘡經驗方 ——— 3항목
- 諺解胎產集要 ——— 2항목

## 2. 調査方法 및 調査地域

조사는 주로 면담의 방법을 취했다.

미리 준비해 간 魚類圖鑑을 켜 그림 및 사진을 제보자에게 보여주고 확인한 이후에 그 사진에 상응하는 方言形을 말하도록 하였다. 물론 1982년도 발표된 李定宰·白文河의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서로 비교도 되어 조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제보자<sup>11)</sup>는 어업에 종사했다거나 현재 배를 부리고 있는 사람을 택했다.

처음에는 직접 제보자 집으로 찾아가 1대 1로 물어보는 방식을 취했으나, 기억이 희미한데다 잘 알지 못한다 아니면 표준어 그대로 알려주어 애를 먹기도 하였다. 조사자의 입장을 의식한 탓이거나 혹 상업상 육지를 자주 왕래하였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몇 사람의 제보자를 한데 모으기로 하였다.

미리 약속된 장소인 포구에 나갔을 때는 어망을 손질하는 어부도 만나게 되어 조사가 한결 수월하였다. 圖鑑의 사진을 보여주고 서로의 의견을 말하게 함으로써 약간의 혼란이 일기도 하였으나 그 대표형을 추출할 수 있었다.

조사지역은 다음의 <조사지점도>에서와 같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北村里는 朝天邑 맨 동쪽에 위치한 半農半漁의 마을이다.尹씨와 李씨가 많다 하여 '尹李마을'이라 불리우기도 하고 해녀가 많아 '해녀마을'로 불리우기도 한다. 호당 경작지가 0.6ha에 불과하고, 北村里 옛이름이 '뒷개'였던 점으로 보아 알 수 있듯, 어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天惠의으로 北村 앞바다에 '달려島'가 위치하고 있어, 전복, 소라, 미역, 해삼, 문어, 각종 해산물이 많이 나 지금은 관광남서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활대모살·큰개·진둔목·세비여·숨은여·수덕이·서캐머리·볼락여·방에여·대방여·너벙여' 등 바다이름이 많고 동시에 浦口가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력선이 30척이 넘고 유람선도 3척이나 된다.

舊左邑 杏源里는 月汀里와 漢東里 사이에 위치한 부락으로 半農半漁이면서도 어업이 주가 되는 마을이다.

이는 杏源里 옛이름이 漁燈浦(어등개)였다는 사실과 이웃마을인 月汀, 漢東 보다도 더 넓은 바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이 마을은 과거 里名이 말해주듯 浦口가 좋아 멀리 日本에까지 해산물을 교역했다거나 잠수기선이 드나드는 어업 전진기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한다. 지금도 동력선이 20여척이나 되어 주 수입원을 바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城山里는 제주도 東端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濟州港, 西歸港에 이은 제3의 港口로 제주도 동남지역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城山浦라 불리워지기도 하는 城山里는 日出峯이 자리하고 있어 관광명소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원래 땅이 척박하고 좁아 바다에 밭을 마련하게 되었고, 성산 앞바다에 있는 牛島(소섬)를

11) 李定宰·白文河의 조사에서는 "이 地方人中에 外地生活을 해보지 못하고 연령이 50대 이상인 漁民을 대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어 구체적인 제보자를 알 길이 없다.

여기서는 필자가 1985년도에 조사했던 杏源里 제보자만을 밝히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일평(남, 89세), 박영찬(남, 55세), 강세진(남, 50세), 안복만(남, 40세), 이기항(남, 39세), 강경일(남, 35세), 차겨운(남, 35세).

중심으로 멸치, 고등어 어장이 형성되어 어업전진기지로도 가치가 높다.

牛島는 얼마 전까지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로 되었었지만 최근 牛島面으로 승격되었다.

城山浦에서 3.8km 북쪽에 떨어져 있는 이 섬은 형상이 마치 물소가 머리를 내민 모습 즉, 牛頭形 또는 소가 누워 있는 모양인 臥牛形이라고 하여 소섬(牛島)이라 불리워지기도 한다.

섬 둘레 전체가 황금어장을 이루어 넓미역·미역·우뭇가사리·소라·전복 등 海藻類, 貝類가 많아 가끔 공동어장 분류<sup>12)</sup>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너른구미·나는어·서궁구미’ 등 130이상이 넘는 海岸名<sup>13)</sup>만 보더라도 어업에의 관심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翰林邑 翰林里는 邑所在地이면서도 비교적 浦口가 발달되어 있다.

원래 翰林은 그 위쪽에 위치는 大林에 설촌되어 지내오다 북쪽 浦口쪽으로 내려와 ‘漢林(한수풀)’으로 불리워오다 翰林으로 里名이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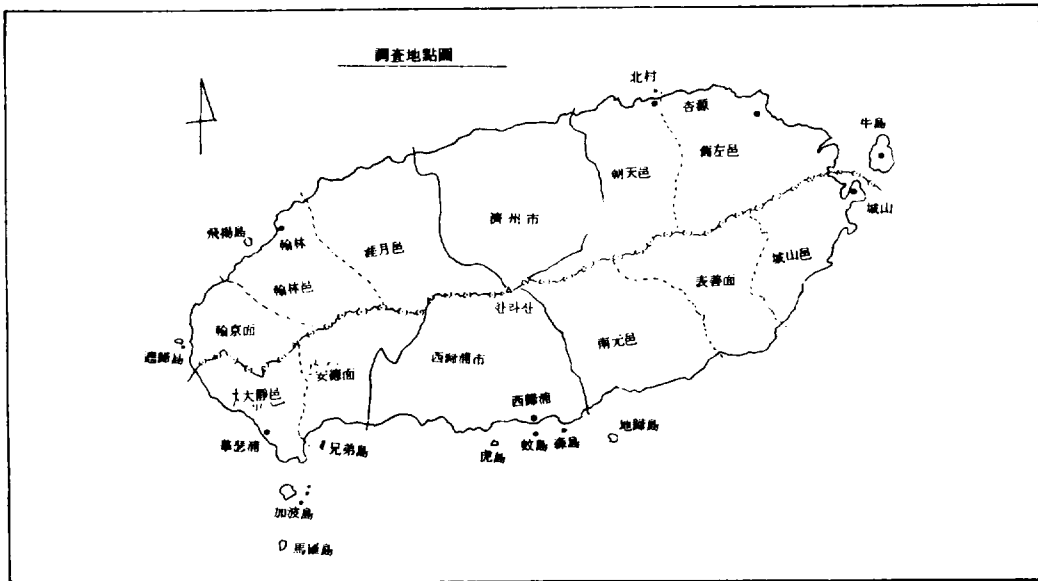
邑所在地이기 때문에 비교적 商街가 발달되어 있으나, 농사도 짓는 한편 어업에도 종사하고 있다.

모슬포는 南濟州郡 가장 서쪽에 위치한 大靜邑 邑所在地로 上·下幕里로 구성되어 있다.

남쪽은 바다와 접해 있어 우리나라 최남단인 加波島와 馬羅島에 이르게 되는 도시형 농촌이다.

下幕里 下洞에 ‘멜개’라는 백사장인 명승지가 있는 점과 幕瑟浦, 雲津浦 등 포구가 발달되어 있어 수산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잠수기선만도 10여 척에 이르고 있다.

西歸浦는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제주도 제2의 관문으로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다.



12) 金斗熙·金榮敦：“海女漁場紛糾 調查研究”，『논문집』(사회과학편) 14집, 제주대, 1982, p. 26.

13) 濟州大國語國文學會：『國文學報』5집(牛島學術調查特輯), 1973, pp. 91~92.

村老들에 의하면 西歸浦의 옛 명칭이 '豐德里'라 했었다 한다. 어선들이 어로작업차 바다에 나갔다가 화를 당하는 게 마을이름 때문이라 생각하고 西歸浦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한다(豐德里의 발음이 의성어인 "풍덩풍덩"이 연상되기 때문). 이 사실만으로도 어업과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3. 資 料

조사된 자료일람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杏源과 城山을 제외하고는 李定宰·白文河의 조사에 따른 것이며, 편의상 몇 지역으로 나누어 본다.).

자료 일람

共 通 語	方 言 名						
	東 部				西 部		南 部
	北 村	杏 源	城 山	牛 島	翰 林	辜 瑟 浦	西 歸 浦
1. 먹장어	곰장어	곰장어	놀 부	곰장어	놀 부	곰장어	곰장어
2. 꿩이상어	도랭이	도랭이	도랭이	도랭이	도롱이	도랭이	
3. 두릅상어	존다니	존다니	존다니	개상어	조편다리	존다니	존다니
4. 복상어		비근다리		비근더리	비근더리		
5. 수염상어	비 계	비 계	비 계		비 계	비 계	비 계
6. 귀상어	빨상어	양지귀상어		양지귀	목 기	빨상어	귀상어
7. 들묵상어	모도리	막쟁이	모도리		쥬모도리	쥬모도리	
8. 환도상어	기름상어		저울도리		저울더리	점베기상어	
9. 별상어	저울도리	저울도리		저울도리	짱상어	돔바리	
10. 까치상어		죽상어		죽상어	죽상어		
11. 돔발상어					짱상어	돔바리	
12. 목탁가오리	밥주기		보섬상어		보섬상어		
13. 전자리상어		수거리	정철이	젠자리	정철이	경철이	
14. 쥐가오리		제비가오리	제비가오리		제비가오리	빨가오리	
15. 멸 치	멜	참멸치	멜	멜	눈통이멜	멜	멜
16. 눈통멸		눈통이멜	멜	멜	멜	눈통멜	눈통이
17. 날메퉁이	아에리		아에리	에 리	아에리	아에리	
18. 솔종개		맹 치	메역치		미역치	민 치	미역치
19. 곰 치					물 뱀		
20. 금눈돔					붉조기	곤자리	
21. 달고기	통두전	돈치·허풍쟁이			돌 치	달 치	돈 치
22. 꼬치고기		고줄메이	고줄메이		고줄메이		

共 通 語	方 言 名						
	東 部				西 部		南 部
	北 村	杏 源	城 山	牛 島	輪 林	慕 瑟 浦	西 歸 浦
23. 만새기					전대미	만배기	만새기
24. 줄삼치				십이가스	십이가스	십이가스	십이가스
25. 가다랭이			가 스	멍텅구리			
26. 점다랭이							소용치
27. 물치다래	멍 치				멍칭이	멍 치	
28. 재방어	저 립	저 립	저 립	저 립	가다리	가다리	저 립
29. 고등어	고등애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30. 황새치					하 요		
31. 가라지					가리지		각재기
32. 전갱이	각재기	각재기	각재기		각재기	각재기	각재기 고도리
33. 부시리	히라스		히라스	생 치	야 드	히라스	히라스
34. 잿방어		부 리			아까방어		간빠찌
35. 주벌치				눈벌렁이	망 치	눈텅이	
36. 줄도화돔	개조기					복재기	복주기
37. 빨 돔	황 돔			빨 돔	불불락	붉은불락	작다구
38. 구실우럭						고래미	
39. 자바리	다금바리	다금바리	다금바리	다금바리	다금바리		다금바리
40. 능성어	구문쟁이	구문쟁이	구문쟁이	구문쟁이	구문쟁이		구문쟁이
41. 벌우럭	붉바리	붉바리	붉바리	붉바리	붉바리	능성어	붉바리
42. 눈불대	붉조기		아까무췌		아까모찌		아까무췌
43. 독 돔				깍 돔			
44. 벤자리	벤 자리	벤 자리	벤 자리	벤 자리	벤 자리	벤 자리	벤 자리
45. 어른돔					천암돔		
46. 감성돔	가문돔	가문돔	가문돔	가문돔	가문돔	가문돔	가문돔 흑돔
47. 참 돔	돔	도 미	도 미	돔	돔	돔	돔
48. 붉 돔		참 돔		점배기			
49. 녹줄돔					빨건쟁이		
50. 구갈돔						메누리돔	
51. 흑벙애돔	구릿· 구리치	구 립	구 립	구 립	구 립	구리치	구 립
52. 황줄깜정어				뱃 돔			어 찌
53. 보구치	흰조기		흰조기	백조기	흰조기		조 기
54. 참조기	노란조기				참조기		조 기
55. 강담돔						얼룩갯돔	
56. 들 돔	갯돔·물툫	물 툫	갯 돔	물 툫	갯 돔	갯 돔	갯 돔
57. 아홉동가리	논쟁이	논쟁이	논쟁이	논쟁이	논쟁이	논쟁이	논쟁이

共 通 語	方 言 名						
	東 部				西 部		南 部
	北 村	杏 源	城 山	牛 島	輪 林	幕 瑟 浦	西 歸 浦
58. 보리멸			모살치	모살맹이	모살치		모살치
59. 옥 돔	오토미	오토미	오토미·생선	오토미·솔래기	생 선	옥 돔	솔라니
60. 망상어	망 치	망 치	망 치	망 치	망 치	망 치	
61. 파랑돔						거문자리	
62. 자리돔	자 리	자 리	자 리	자 리	자 리	자 리	자 리
63. 호박돔			어랭이		물코쟁이	바당어랭이	
64. 흑 돔	헝 이	헝 이	헝 이	헝 이	헝 이	헝 이	헝 이
65. 어랭놀래기	매전다리		왕가마	매전다리	맥 배	맥 씨	맥전다리
66. 황놀래기	어랭이		어랭이	돛어랭이		어랭이	어랭이
67. 용치놀래기	술맹이·돌치	술맹이	청술맹이·술맹이	술맹이·실어랭이	술맹이·어랭이	술맹이	술맹이
68. 놀래기	코생이	코생이	코생이	코생이	코생이	코생이	코생이
69. 범 돔				뚝대기·곡돔			남신발레
70. 쥐 돔				바당괘주리·도당배기		콧괘주리	돛 돔
71. 독가지치	따치·단치	다 치	다 짜	따치·따찌	따 치	만 치	따 치
72. 열쌍동가리				아홉돔뱅이			
73. 압동갈베도라치				굴도독놈			
74. 그물베도라치			보들락	보드래기·보들락	보드래기	베들래기	보드래기
75. 별망돔	덤불랑치·덤불맹이			덤벌치	덤부지		덤불치
76. 불 락	불 락	불 락	불 락		누르시	불 락	빨래기
77. 도화불락	불불락		불 락	점불락	불 락	불 락	우 렉
78. 불불락	불불락		불 락		불 락	불 락	우 렉
79. 쏘뱅이	우 렉	검뿔우럭		쏄 치	감뿔우럭	우 렉	솔 치
80. 붉감팽	맹내기	맹내기우럭		맹매기			우 렉
81. 우럭불락		방장우럭		방장우럭			
82. 살낚치						가시우럭	
83. 점감팽	쏄치우럭	가시우럭		쏄치우럭		가시우럭	
84. 쏘미기	쏘 치		쏄 치	쏄 치	쏘 치	쏄 치	쏘 치
85. 미역치							쏄 치
86. 쏄배감팽				산방우럭	쏘치우럭		
87. 노래미	줄 락		조우럭·줄	줄 락	줄 락		줄 락
88. 양 태	장태·장대				장 태		



共通語	方言名						
	東部				西部		南部
	北村	杏源	城山	牛島	翰林	慕瑟浦	西歸浦
89. 성 대				장 대	장태 · 붉은장태		장 대
90. 물가자미	섯						
91. 흑대기	서대	섯	섯				서 대
92. 참서대	서대		섯				
93. 쥐 치	납깍꺾주리	깍주리	깍주리	깍꺾주리	깍주리		깍주리
94. 말꺾치	납꺾꺾주리	깍주리	깍주리	깍꺾주리	깍주리		깍주리
95. 거북복	평복쟁이	평복쟁이			평복쟁이	철갑복쟁이	철갑복쟁이 · 평복
96. 까치복		심방복			알랑복		칠 복
99. 아 귀	물 썸				마굴치	아 구	

#### 4. 內容分析

위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A) 물고기 이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命名되는가 하는 命名類型과 (B) 그에 따르는 接尾形態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물론, 命名類型에서 稚魚와 관련하여 接頭形態가 다루어지기도 할 것이다.

##### (A) 命名類型

물고기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名命類型은 대개 ① 魚類의 形態 ② 魚類의 色紋 ③ 魚類의 習性 ④ 生産方法 ⑤ 成·稚魚 ⑥ 類推 등이 있다.

魚類의 形態에 따른 命名法은 물고기의 형상에 따라 그와 비슷한 사물의 이름을 차용하는 것으로 ‘넙치(廣魚), 갈치(刀魚), 버들치(柳魚)’와 같다. 이 제주도에서도 ‘보섭상어(목탁가오리), 제비가오리·뿔가오리(쥐가오리), 눈퉁이멜(눈통멸·멸치), 저울도리(별상어), 쥐모도리(돌묵상어)’가 여기에 속한다.

魚類의 色紋에 의한 명칭은 색깔이라든가 광택에 따른 명명법으로 ‘기름치(油魚)’와 같은 유형이다. ‘점베기상어(환도상어), 고줄맹이(꼬치고기), 황돔(뿔돔), 붉바리(별우럭), 가문돔(감성돔), 흰조기(보구치), 노란조기(참조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習性에 따른 명칭은 특이하다. 이는 ‘나는 물고기’라 하여 ‘날치(飛魚)’와 같이 명명하는 방법으로, 제주도에서만 보더라도 ‘놀부(먹장어)’와 같이 아주 특수어로 전하고 있어 쉬 알아볼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命名者 눈에 비친 습성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문어(특수어)로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한다. ‘허풍장이(달고기), 멍청이(물치다래) 물뿔(돌돔), 논쟁이(아홉동가리), 모살치(보리멸), 도당배기(쥐돔), 보들락(그물베도라치), 솔치(썸뱅이)’ 등이 있다.

生産方法에 따른 명명으로 ‘명태’가 그 예에 속한다. ‘진태’가 ‘말린 것’이라고 한다면 ‘동태’는 ‘얼린 것’, 최후에 잡힌 것을 ‘막물태’라 하는 것등이다.

‘대구’에 대해서 거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부른다고 한다.<sup>14)</sup>

- 약대구 : 알쟁이대구를 소금에 저려 말린 것
- 애 미 : 배를 타고 소금에 저려 말린 것
- 열 착 : 배를 타고 그대로 말린 것
- 통대구 : 내장을 빼고 원형대로 말린 것

成魚, 稚魚에 대한 명칭은 제주도에서는 ‘아까방어(쟁방어)’에 대한 稚魚로 ‘야꾸’가 조사되었을 뿐이지만 육지부에서는 자세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다.<sup>15)</sup> 成魚에 대한 稚魚는 {-sari}라는 접미사를 연결한다든가 {-물-, 국수, 도령, 애-}라는 접사들을 연결하여 稚魚임을 나타낸다(예를 들면 ‘물방어, 국수멸치, 도령대구, 애태’와 같다.). 이곳엔 {-sari}라는 접미사가 없으며 {-물-}이 붙기는 하지만, 결코 稚魚를 말함이 아니다. ‘곰치’를 ‘물뱀’으로, ‘돌돔’을 ‘물돛’, ‘아귀’를 ‘물뿔’ 등으로 부르고 있었지만 成魚 또는 그 代表形의 이름이지 稚魚에 대한 명칭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sari} 대신에 {-çari}를 접미시켜서 稚魚의 뜻 보다는 크기가 작은 물고기를 표현하고 있다. ‘자리돔’을 ‘자리’, ‘파랑돔’을 ‘거문자리’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는 바, ‘자리돔·파랑돔’ 그 자체 크기가 작다. ‘자리돔’인 경우 그냥 ‘자리’로 명명되어 있긴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자리’를 쓴다. 아직은 너무 어려서 따로 떨어져 나가 살아갈 수 없는 돼지는 보통 두 마리를 한 우리에 넣고 키우는데, 이 때 작고 어린 두 마리의 새끼돼지를 ‘자릿도새기’라 부른다. 이때 ‘자리’가 魚名에까지 확대되어 쓰인 것이라 본다.

작은 것을 나타내는 접두 형태로는 {-조-}가 쓰이기도 한다.

작은 소리를 ‘조쿠쟁이’ 또는 ‘조쿠쟁기’라 하는데 {-물고기에서도 이 {-조-} 형태를 연결하여서 작은 물고기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노래미’를 ‘조우럭·졸·졸락’ 등으로 부르는데 이때 {-조-, 졸}이 크기가 작은 것을 뜻하고 있다.

類推에 의한 명명유형으로 ‘존다니(두릅상어)’를 들 수 있다.

‘존다니’라고 하는 말은 ‘말이 많은 사람’ 또는 ‘듣기 싫은 말’ 등으로 쓰이는 토박이 말이다. 말이 많다는 것은 입을 자주 움직이어야 하고, 싫은 소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을 되뇌이거나 자

14) 張泰鎭(1969), 앞논문, p.118.

15) ‘송어’에 대한 세세한 분화는 놀라울 정도다.

張代鎭(1969): 앞논문에서 재인용(p.126).

구별	소 중 어				중송어	대 송 어			
연령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	5년생	6년생	7년생	8년생	9년생
호칭	모쟁이	또물치	모 치	등굴모치	이듬송어	방치송어	사름송어	대명사	나모르기

주함으로써 싫어지는 것이다. ‘두릅상어’는 물렁뼈로 되어 있어 입안에 넣고 여러번 씹어야 하고, 가끔 씹는 소리까지 동반하게 되니 ‘존다니’가 연상되어 그렇게 명명되어진 것이리라.

‘까치복’의 方言形인 ‘심방복, 알랑복, 칠복’도 이런 경우에 포함된다. 무당의 방언형이 ‘심방’이고 ‘심방’은 말을 꾸며대거나 아니면 좋은 말은 골라 해야 하며, 복·징과 같은 巫具도 ‘쳐야’한다. 이와같은 연상이 낳은 결과, 그 방언형들이다.

우리는 물고기 이름에 대한 命名類型을 살펴보았다.

제주도에서는 魚類의 形態, 色紋, 習性 및 類推에 의한 命名法이 대중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生産方法에 따른 命名은 보이지 않으며, 成魚, 稚魚에 대한 구별도 分化되어 있지 않다. 작은 물고기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리-, }조-, }줄이 연결되는데, 이때의 명명법은 魚類의 形態에 따른 명명유형에 속한다.

(B) 接尾形態

共通語에서 魚類에 관용되는 접미형태로는 {-či, -čhi, -čɛŋi, -tari, -kari, -ak, -i}가 있다. 이 중 {-čhi, -i}가 生産의으로 쓰이나 그밖의 접미형태들은 연결에 제한이 따라 비생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방언에서 물고기에 접미되어 쓰이는 形態로는 그 수요가 많고 生産性이 강하다. 제주도방언의 접미형태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접미사 일람표

지 역	동 부	서 부	남 부	계
접 미 형 태				
i	24	17	12	53
či~čɛi~čhi	12	10	11	33
ki	8	8	5	21
tari~tori~təri~rani	5	6	6	17
ak~ək	5	5	4	14
ə	4	5	3	12
pari	2	3	2	7
čari	2	2	2	6

① {-i}

이 {-i} 接尾形態素는 당초에 行爲名詞나 尺度名詞를 만들기 위한 抽象名詞化의 機制가 本領이었다. 그러나 점차 그 기능은 具體的 事物의 名稱을 만드는 것으로 확대되어 적용 범위가 넓혀진 바,<sup>16)</sup> 生産性을 지닌 接尾形態素이다.

16) 沈在箕: 「國語語彙論」, 集文堂, 1982, p. 310.

사람의 이름 다음에 연결되어 '수남이, 갑돌이, 갑순이'와 같이 쓰이기도 하고, '놀이, 벌이, 다듬이'처럼 구체화된 行爲名을 나타내는가 하면 '물굽이, 두꺼비'와 같이 일정한 대상에 결부됨으로써 物名化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물고기 이름에도 연결되어 쓰이는 게 아닌가 한다.

'돔'을 그냥 '돔'이라고 명명하여도 되는데 이 {-이}가 접미되어 '도미', '옥돔'을 '오토미'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자리상어'에 대한 方言形 '정철이, 경철이'가 있음에 주목한다. 이는 바로 {-이} 형태가 물고기 이름에 연결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이 '정철이, 경철이'에서 '정철, 경철'은 필시 사람 이름이 틀림없다. 처음으로 그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이름을 지닌 사람의 모습, 성질과 비슷하기에 그렇게 명명되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받침이 있는 사람 이름 뒤에 {-이}를 덧붙여 부르는 것과 동체가 되는 것이다.

### ② {-치}~-치이~-치이

通時的 입장에서 {-치이}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이 {-치이}는 전통적으로 물고기 이름에 붙여써 온 전형적인 접미형태소다.

'멸치, 생치, 바늘치, 준치, 날치, 버들치, 가물치, 넙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치이}는 작은 물고기를 나타내는 게 본령이었으나,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물고기에는 두루 쓰이게 된 것 같다.

{-치이}는 별로 쓰이지는 않지만(예: 가라지) {-치이}의 異形態이다. 제주도방언에서도 '가라지(가라지)'와 '덤부지(별망둑)'가 보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제주도방언에만 있는 {-치이}에 주의한다. '다찌·따찌(독가시치), 어찌(황줄잠정어), 아까모찌(눈볼대), 간빠찌(갯방어)'등이 바로 그 예들인데, 혹시 日本語 借用에 따른 영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제주도방언에서도 {-치}, {-치이} 보다는 {-치이}가 生産的이다.

### ③ {-키}

물고기 이름에 {-키}가 접미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鷄林類事》에 '魚肉曰皆姑記'라 되어 있고 《訓蒙字會》에도 '魚·肉'에 대해 각각 '고기어, 고기육'으로 되어 있다. 또 '달고기, 꼬치고기, 참조기' 등이 있음으로써 분명해진다.

한편 우리는 물고기 이름에 연결되는 접미형태소 {-키}가 名詞化素 {-키}에서 類推된 게 아닌가 하는 개연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귀상어'에 대한 方言形인 '양지기, 묵기'와 '줄도 화돔'에 대하여 '복재기'가 나타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키}의 異形態라 할 수 있는 {-कु}가 있기 때문이다. 즉 '뿔돔'이 '까다구'라는 方言形이 바로 그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키}와의 상관성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 ④ {-타리}~-타리~-타리~-타리

接尾形態素 {-tari~-tori~-tari} 들은 다 같이 중간 크기의 물고기를 나타내는데 쓰이는 형태들이다.

‘조편다리(두롱상어), 모도리(돌묵상어), 저울도리(환도상어·별상어), 가다리(재방어), 매편다리(어랭놀래기), 비근더리(복상어)’ 등이 그 예들인데 中魚의 개념만으로 쓰이는 것 같지는 않다. 앞에서 언급한 {-ch'i}와 마찬가지로 유추에 의해 광범하게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異形態로 {-rani}가 있음에 주목한다. ‘옥돔’을 南部地域에서는 ‘솔라니’라고 하는데, 이때 {-rani}가 {-tari}로 대표되는 접미형태의 이형태를 발견하게 된다.

이미 국어학계에서 상식이 되어버린 언어사실이긴 하지만, n이 r로 교체되는 법칙이 있다. 예를 들면 ‘하나비’가 ‘할아비’, ‘~~한~~전마논’이 ‘~~한~~전마~~론~~’, ‘안음’이 ‘아름’과 같다. {-tari}와 {-rani}를 비교해 볼 때, {-rani}의 {-ni}가 {-ri}의 원형임이 짐작된다.

또 t와 r은 서로 넘나들어, ‘이튼날 : 이튼날, 설달 : 설달, 술가락 : 순가락, 삼질날 : 삼질날, 바느질고리 : 반질고리’ 등과 같이 {-tari}와 {-rani}에서 {-tai}, {-rai}가 서로 넘나들어도 확인된다. 그래서 우리는 {-rani}가 {-tari}의 이형태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⑤ {-ak~-ək}

‘불볼락·붉은볼락(뿔돔), 점볼락(도화볼락), 검평우럭(뿔뱅이), 가시우럭(점감쟁), 조우럭(노래미)’ 등에서 접미형태소 {-ak} 또는 {-ək}이 발견된다.

이 {-ak}, {-ək} 접미형태는 매우 생산적임이 잘 알려져 있듯,<sup>17)</sup> 물고기 이름에서도 生産的이다.

한편 ‘그물베도라치’가 方言形으로 ‘보들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보들래기’로 실현되기도 하며, ‘볼락’도 ‘뿔래기’로, ‘오돔’이 ‘솔래기’로 실현되기도 해 이 {-ak, -ək} 형태 다음에 {-i} 형태가 덧붙여 쓰이기도 한다.

⑥ {-ə}

{-ə}는 한자어 차용에 따른 접미형태소이다. 원래는 우리말로서 ‘魚’에 해당하는 어휘(말)가 있었으나, 일정기간 한자어 ‘魚’와 공존해 오다가 소멸한 게 아닌가 보아진다.

《三國遺事》卷三 ‘魚山佛影’條에

古記云萬魚寺者古之妓成山也又阿耶斯山 舊作摩耶斯<sup>18)</sup>  
此云魚也

17) 李崇寧：“接尾辭 -k(g), -ŋ에 대하여”, 『서울대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4집, 서울대, 1956(李崇寧의 「國語造語論攷」(乙酉文化社, 1961)에 재수록. pp. 88~118참조).

뜰→뜨락	털→터럭	움→우막
안→아낙	쌀→싸락	남→나막
감→가막	가르→가락	남→나락

18) 崔南善編：『三國遺事』, 瑞文文化社, 1983, p. 163에서 재인용.

海東人名此山爲阿那當作摩那士翻爲魚盖取彼北天事而稱之爾<sup>19)</sup>

가 있다. 이 인용문에 알 수 있는 바는 ‘摩耶斯’ 또는 ‘摩那斯’가 ‘魚’에 해당하는 순수 우리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耶’와 ‘那’는 서로 넘나들기 때문에(ja:na로 徐那伐:徐羅伐:徐耶伐) ‘耶=那’가 성립되어 \*manas<sup>㉠</sup>, \*majas<sup>㉡</sup>로 재구할<sup>20)</sup>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재구하고 볼 때 물고기 이름 중에 ‘만새기’가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鷄林類事》의 魚曰水脫 또는 魚肉皆曰姑記라는 기사로 봐, ‘水脫’은 ‘슈탈(수탈)’로 해독이 되어 무의미하고<sup>21)</sup> ‘姑記’는 ‘고기’로 해독이 되어 아예 다른 어휘가 되었으니, 재구된 \*manas<sup>㉠</sup>는 이미 12세기 이전에 廢語化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잔영이 ‘만새기’에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만새’는 재구된 \*manas<sup>㉠</sup>와 음성형 및 형태가 같고, |-kil은 물고기 이름에 접미되는 형태소로 본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 ⑦ |-pari

제주도방언에서 |-pari 접미형태소는 매우 生産的이다.

‘돔바리(별상어), 다금바리(자바리), 붓바리(별우럭)’ 등 魚名은 물론, ‘왜바리(왓가닥), 악바리(악을 쓰는 사람), 빙바리(빙과리)’ 등과 같이 실현되기도 한다.

이 |-pari 형태소는 제주도에서는 접미사로도 쓰이는 한편, 數冠形詞의 도움을 받아 사용되는 단위성 의존명사이기도 하다. 즉 |-pari는 準自立形 |바리|에서 文法素 |-pari로 발달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sup>22)</sup>

이 |-pari가 準自立形으로 쓰이는 경우는 마소에 짐 실는 단위(예: 혼 질매에 혼 바리나 시꺼져), 장작개비 다발의 단위(예: 낭 서너 바린 해사 일 생겨질거라), 풀이나 보리대 다발의 단위(출선 바린 해사 저술 나주), 말(馬)의 단위(예: 말 두 바리)와 같이 ‘荷物’ 또는 ‘묶음’의 뜻으로 쓰인다. 이러한 準自立形 |pari|가 自立性을 상실하여 특정한 語根에 통합되어 의존형인 接尾辭의 직능으로 변모된 터이다.

### ⑧ |-čari

접미형태소 |-čari가 ‘자리(자리돔)’와 같이 독립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크기가 작은 물고기에 붙는 접미형태다. 그러니깐 공통어의 |-pari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19) Ibid., p.165에서 재인용.

20) 李崇寧(1935)에서는 \*mana/ \*maja, \*man-as(㉠)/ \*majas(㉡)로 재구하고 있는데 표기내용에 충실한다면 후자쪽을 택해야 할 것이다.

21) 方鐘鉉도 잘못을 지적한 곳이다. 그는 원전 자체가 잘못 되어 ‘魚曰’이 나타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사이에 ‘용’과 ‘자라’가 나타나고 있으니 ‘수달피’를 말하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

方鐘鉉：“鷄林類事研究”，「東方學志」 제2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55, pp.153~154.

22) 金洪植：“‘비바리’語攷”，「延岩玄平孝博士 回甲紀念論叢」, 同刊行委員會, 1980, pp.321~322.

‘자리(자리돔), 거문자리(파랑돔), 벤자리(벤자리)’ 등이 그 예에 해당된다.

한편 {-karil}로 대표되는 一群의 접미사가 이 방언에 존재하지 않음이 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 5. 地域間的 差異

여기에 쓰인 地域은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점 또는 몇 개의 지점을 하나의 群으로 묶은 개념으로서의 지역이다.

앞에 제시된 資料에 따라 北村·杏源·城山·牛島는 ‘東部地域’을, ‘西部地域’은 翰林과 辜瑟浦 두 지역을 묶었으며 ‘南部地域’은 西歸浦라는 단일 조사지역만으로 묶여진 지역 명칭이다.

이렇게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보았지만, 어부들은 일정한 浦口를 따라서 이동할뿐더러 操業하는 바다 또한 구분이 되지 않고, 시장도 한 곳 또는 일정한 곳에서만 형성되기 때문에 자연 다른 지역의 언어와 접촉이 빈번하여 언어의 混態相을 보여줌으로써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音節數·接尾形態·특이한 이름을 중심으로 지역간의 차이를 발견해 보고자 한다.

#### 차이1(음절수)

지역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물고기에 같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을 제외하고 음절수가 다르게 명명되어진 魚名은 그리 많지는 않았다. 東部地域을 중심으로 西·南部地域과 음절수를 비교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음절 비교

음절 수 지역	지역	서					남				
		1	2	3	4	5	1	2	3	4	5
동	1				1		1				
	2	1		2	1		1		2		
	3				4				2	1	
부	4		1	5	1	1		1	3		2
	5		1		1						

東部の 1음절어가 西部의 4음절 나타나는 경우는 멸치(15번)로 ‘멜’이 ‘눈통이멜’로 실현된다. ‘눈통이’만 더 들어가 멸치의 형상을 강조한 것뿐이지 별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 반대로 西部의 1음절이 東部の 4음절로 나타나기도 한다(16번의 경우).

東部 2음절어가 西部에서는 3, 4음절어로, 南部에서는 3음절어로 나타나고 있으며(28, 37, 76,

34번 경우), 東部 3음절이 西·南部에 4음절로 실현되고 있다(63, 74번 경우).

한편 東部の 4음절은 西部에서는 3음절이 대중을 이루고 있고(8, 9, 67, 75번 경우), 南部에서는 3, 5음절로 변모되어 있다.

西部와 南部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 다른 地域과 비교한 결과 東部에 비해 西部, 南部가 비교적 긴 편이다.

제주도는 四面이 바다로 둘러싸여 하릴없이 거칠고 험한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살아왔으며, 거친 바다에서 상대방에게 충분한 의사전달을 위해서는 음절수를 길게 늘리어 발음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sup>23)</sup> 西·南部에서 음절수가 비교적 길다고 하는 것은 혹 태풍 진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형적인 관계와 유관하지는 않은지 문제거리로 남겨둔다.

### 차이2(접미형태)

앞에 제시한 '접미사 일람표'에서 알 수 있듯, |~i| 자체가 다른 접미사들과 비교할 때 生産的이지만 지역별로는 東部地域에서 우세하게 쓰이고 있다. 빈도는 南部가 가장 적다.

|~chi|의 형태는 東部가 우세하나 異形態인 |~ci|는 西部에서만 나타남이 특색이다.

한편 |~ki|는 南部가 열세에 처해 있는 반면, 東·西部에서는 균등하게 쓰이고 있다.

|~tari~--tori~--tori~--rani| 접미형태들은 地域別에 따라 고루 나타나고 있지만 |~təri|는 東部에 나타나지 않으며, |~rani|는 南部地域에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əi|는 西部地域이 광범하게 쓰이고 있으며, |~pari| 또한 西部地域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차이3(특이 어휘-형태)

① 사람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로는 '놀부(1번), 정철이·경철이(13번), 허풍쟁이(21번)' 등이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명칭은 南部地域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接頭形態로는 |취-, 물-, 조-, 줄-| 등이 있다.

|취-|는 西部地域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7번), 물-|은 南部地域에 나타나지 않는다(19, 56, 99번).

|조-, 줄-|은 같은 뜻을 지닌 접두형태로 |줄-|이 제주도 전역에 걸쳐 나타나는 반면 |조-|는 東部地域에서만 나타난다(87)..

③ 지역에 따라 음운의 변화가 생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우리는 n→r의 변화를 알고 있으며 전파의 방향은 '남부→서부→동부'가 됨을 발견하게 된다. 바람의 방향과의 관계가 고려되어져 할 문제다.

23) 이와 같은 사실은 向山地域語와 向海地域語를 비교할 때 선명하게 드러난다. 拙稿(1986), 앞 논문 p.12참조.



번 호	동 부	서 부	남 부
21		돌 치	돈 치
40	구 몽 쟁 이	구 문 쟁 이	구 몽 쟁 이
71	단 치	뎡 치	따 치
84	썰 치	쏟 치	쏘 치

### Ⅲ. 結 論

우리는 논 의 대상이 되었던 魚名에 대해서 도출해 낼 수 있었던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1. 命名類型은 魚類의 形態, 魚類의 色紋, 習性, 生産方法, 成·稚魚의 關係, 類推 등이 있는데, 제주도방언의 魚名들은 대부분 形態, 色紋·習性 그리고 類推에 의한 命名法이 주고 된다.

2. 아예 生産方法에 따른 命名은 없으며, 稚魚보다는 크기가 작다는 뜻을 지닌 {조-}(접두사)와 {-자리}(접미사)가 있었다.

3. 물고기에 연결되는 接尾形態素로는 {-i}, {-<sup>h</sup>i}, {-tari}, {-ak}, {-<sup>o</sup>}, {-pari}, {-<sup>ri</sup>} 등이 있는데, 유독 제주도에만 있는 {-rani}와 生産的인 {-pari}가 있음이 특징이다. 반면, 공통어(육지부)에 있는 {-kari}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4. 음절수는 東部地域에 비해 西·南部地域이 비교적 긴 편이다.

5. {-<sup>ci</sup>}는 西部에만 나타나고, {-rani}는 南部에만 나타난다. {-t<sup>o</sup>ri}는 東部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6. 사람 이름과 관련된 魚名은 東·西部에만 나타난다.

接頭形態로는 {<sup>ri</sup>-}, {물-}, {조-}, {출-}이 있는데, {<sup>ri</sup>-}는 西部에만, {조-}는 東部에만 나타나는 반면, {물-}은 南部에 나타나지 않는다.

7. 魚名은 混態相을 보여주고 있지만, 언어의 전과과정은 '남부→서부→동부'로 추정된다.

Summary

A Survey of the Fish Names in Cheju Dialect

*Kang Young-bong*

This paper deals with the fish names in Cheju Dialect.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 1) The type of naming a fish are similar to that of the Main Land.
- 2) Cheju Dialect does not have a infantish fish names, but has such morphemes  $\{-\check{c}ari\}$   $\{\check{c}o-\}$  as expressing or meaning small fish.
- 3) And also we could find the special morpheme  $\{-rani\}$  appeared only in Cheju Dialect.
- 4) A some special morphemes are found in the different districts. That is to say  $\{-\check{c}i\}$ ,  $\{-rani\}$ ,  $\{-tari\}$ .
- 5) The process of linguistics diffusion is thought to be made first from begining at the southern parts and next to western, eartern part of the island.